

라트비아공화국 외무상

야니스 유르잔스 앞

존경하는 외무상 각하,

나는 라트비아가 독립을 이룩한 것과 관련하여 외무상 각하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라트비아의 독립을 인정하며 앞으로 귀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에 맞게 각방면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나는 귀국에서 일이 잘되나하기를 바라며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 김 영 남

1991년 9월 7일

평양

Korejas Tautas Demokrātiskās Republikas ārlietu ministra Kima Jonnama 07.09.1991. vēstule par valdības lēmumu atzīt Latvijas neatkarību  
Orīnāls. Saņemts 08.09.1991. Latvijas Pastāvīgajā pārstāvniecībā Maskavā. Korejiešu val.

Letter from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Yong-nam, regarding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cognize Latvia's independence, 07.09.1991  
Original. Received at the Permanent Representation of Latvia in Moscow on 08.09.1991. Document in Korean.